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꿈을 실현하는, **‘우리는 인천’**입니다



꿈을 꾸면, 삶은 빛납니다.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300만 인천시민이 같은 꿈을 꾸며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 시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겨울의 고향은 하얀 세상



고향의 눈은 밤새 소리 없이 찾아온다. 그 하얀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건 누렁이다. 그런데 고향이 개발되면서 누렁이는 먼저 어디론가 떠났다. 물론 고향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 오봉산 아래 양지바른 곳이 나의 고향 ‘산뒤편마을’이다.

겨울이면 하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하얗게 덮었다. 어린 마음에 그 하얀 눈을 천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겨울을 하얀 세상으로 생각하며 사진을 찍는다.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이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 2023  
02  
12

표지 사진  
더 새로운 인천의 하늘, 땅, 바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고주룡(대변인)  
**편집주간** 유준호(공보담당관)  
**편집장** 임성훈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류창현·임학현·유승현·  
허정인·박재현·김현희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담당관실 032-440-8306



<굿모닝인천>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인천은 하늘과 땅, 바다를 아우르는 도시입니다. <굿모닝인천> 12월호는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1,000만 도시가 된 우리 시가 하늘로 비상해 세계로 나아가는 이미지, 그리고 시민 품에 안긴 바다(인천항 내항)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으로 더욱 새로워진 땅(송도국제도시)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초대해 2023년의 인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천시민이라면 공감할 만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골목길 TMI’에서는 수백년 동안 마르지 않은, 함봉산 안자락 열우물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앞두고는 진화하는 자원봉사 현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인천 개항기에 꽃핀 음악을 찾아, 근대음악 발굴에 천착하는 예인<sup>藝人</sup>을 만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왜 인천에서 먼저 기록해야 하는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강화의 ‘쑥쑥’ 갈비찜도 레시피와 함께 <굿모닝인천>의 식탁에 올렸습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CONTENTS

04 인천 미소 이동 노동자, 파이팅! 外	44 의회 뉴스 베트남 띠엔장성 대표단 방문 外
05 시민 행복 메시지 한 해를 보내며	46 인포 박스 저소득 어르신 들니 지원 外
06 인트로 아듀 2023, 인천 ( )를 품다	49 인천시민의 시선 나만의 연말 풍경
08 더 인천 : 인천시민 12 시민이 말하는, 인천의 오늘과 내일	50 문화 캘린더 1970년, 승란씨의 결혼 이야기 外
14 골목길 TMI 18 부평구 열우물마을	52 컬러링 인천 개항장
20 근대음악 여정 〈이승목 예인관〉	54 시민 작가전 2023 컬러링 인천
24 2023 K-UAM 콘팩스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인천이 있다	56 2023년 〈굿모닝인천〉이 걸어온 길 내년은 더 밝고 힘차게
28 인천 오감 레시피 12 잔잔한 식탁 ‘쑥쑥 갈비찜’	58 인천의 아침 추억에서 미래로
32 트렌드 인천 2023 12 요즘 봉사 활동	59 인천 사진관 ‘시민행복’ 네 컷
36 시민 출사 시민 작가가 포착한 아름다운 인천 공원의 사계절	
40 시정 뉴스 인천시 내년도 예산 15조 원, 시민과 함께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 外	
43 이미지 뉴스 인천시 2024년 예산안 공개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바로그



# 인천미소

—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naver.com/incheontogi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이동 노동자, 파이팅!

요즘 사람들에게 택배나 배달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똑똑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집 앞에 바로 도착하는 그 편리함이 사라진다면 모두 그야말로 '멘붕'에 빠질 겁니다. 이동 노동자를 위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고, 그들을 위한 쉼터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정은정 부평구 부평문화로

## 그리운 화평동 냉면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면 화평동 냉면을 먹는 게 친구들과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세숫대야만큼 크고 연신 육수를 들이켜야 할 만큼 칼칼한 냉면을 후루룩 넘기며 입시 스트레스도 꿀꺽 삼키곤 했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먹었던 냉면보다 더 맛있는 냉면은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화평동 냉면, 그 맛이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김명희 중구 우현로

## 도시 한복판의 캠크닉,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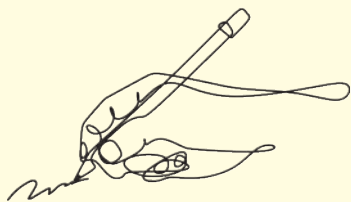
지난 11월 11일 인천시청에서 캠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즐기는 캠핑은 자연 속 캠핑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침 <굿모닝인천>을 보니 '캠핑'과 '피크닉'을 합해 '캠크닉'이라고 한다더군요. 이제부터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동네 근처에서 두 손 두 발 가뭇한 캠크닉을 즐겨야겠습니다.

서상진 계양구 효서로

## 컬러링의 매력에 푹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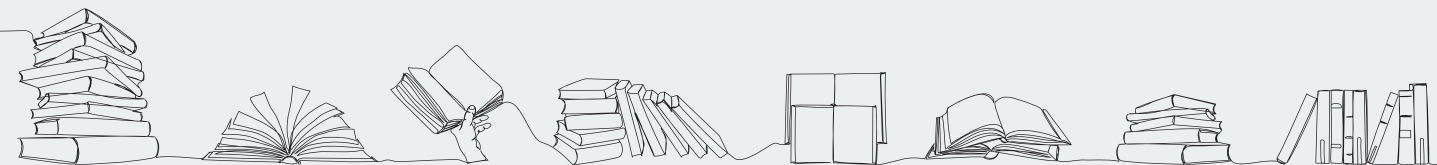
<굿모닝인천>이 집에 도착하면 저희 아들은 제일 먼저 '컬러링 인천' 페이지를 펼칩니다. 이번엔 어떤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부터 숙제도 제쳐두고 색칠에 몰두하곤 합니다. 이번 달엔 아들 녀석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못 이기는 척 같이 했는데, 그동안 아들이 왜 그렇게 '컬러링 인천'에 푹 빠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이지율 연수구 송도과학로



#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민이 수상자입니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미국 시애틀의 공공도서관에 낸시 펄<sup>Nancy Pearl</sup>이라는 사서가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그에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시애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 어찌 보면 다소 엉뚱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도시의 모든 시민이 같은 책을 읽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시민들이 하퍼 리<sup>Harper Lee</sup>가 쓴 <앵무새 죽이기>를 돌려 읽은 것입니다. 2011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One City One Book)’은 이처럼 한 도서관 사서의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캠페인이 다른 도시로 확산하면서 낸시 펄의 상상을 담은 문구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은 독서 운동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됐습니다.

단지 도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책읽는 부평’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의 원형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지역의, 많은 시민이 독서 토론회, 북 콘서트 등을 통해 학연, 지연보다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책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책연<sup>冊緣</sup>’이라 한다지요. <굿모닝인천>이 시민과 맺고 싶은 인연입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고, 시민과 시정을 잇고, 시민과 희망을 잇는 징검다리, 바로 <굿모닝인천>의 지향점입니다.

<굿모닝인천> 360호의 마감이 임박했을 때, <굿모닝인천>이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7년 연속 수상의 쾌거입니다.

커뮤니케이션<sup>communication</sup>은 인연을 맺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소통 없는 인연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책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책연은 책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중 최선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자는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올해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굿모닝인천>의 지면을 빛내주셨습니다. 고단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길 위의 삶을 들려주셨고, 자신만의 소중한 의미가 각인된 거친 손도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골목길로 안내하면서 진한 사람 냄새를 느끼게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 <굿모닝인천> 마지막 호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올해 시민들이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자양분 삼아, 더 크고 깊은 숨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굿모닝인천>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과의 소중한 책연,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 아듀 2023, 인천 ( )를 품다

1,000만 도시, 문자, 전쟁과 평화, 내항...  
2023년 인천을 관통한 '키워드'들이다. 모두 '품다'라는 동사를 공유한다. 사람을 품었고, 공간을 품었고, 문화를 품었다. 평화에 대한 염원도 품었다. 도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역동적 순간이 유난히 많았던 인천의 2023년을 되돌아본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재외동포를 품다

1902년 12월, 한인 121명을 태운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근대 이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20여 년이 지난 6월 5일 750만 재외동포 지원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등지를 틀었다. 이역만리 외국으로 동포들을 떠나보냈던 도시가 그들을 다시 품에 안는 도시로 변신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은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1,000만 도시로 거듭났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있다.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는 재외동포청이 자리한 인천시가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재외동포청이 개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은 또 한 번 경사를 맞이했다. 인천이 문자를 통해 세계사와 인류 문명의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진 것이다.

## 문자를 품다

6월 29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송도국제도시(연수구 센트럴로 217)에 문을 열었다. 세계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대지면적 1만 9,418㎡, 연면적 1만 5,65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야외 전시 공간,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강당, 아트 스킵,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었다.

고대 서아시아의 홍수 신화인 '아트라하시스 신화'를 아카드어 쉐기문자로 기록한 '원형 배 점토판'(기원전 2000년~기원전 1600년)을 비롯해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등 전 세계 문자 자료 543점(244건)을 소장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1주년이 된 6월에 이처럼 겹경사까지 맞은 인천은 9월 평화의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 평화를 품다

전쟁과 평화는 한 묶음이다. 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9월 15일부터 주말 사이 인천 앞바다를 비롯해 인천 곳곳에서는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전승 기념식과 재연 행사를 비롯해 해군 첩보부대 추모식과 당시 유엔군 폭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주민 희생자 위령비 헌화, 인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주관한 '인천과 한국사회-인천상륙작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한국전쟁 주요 참전국 주한 외교대사 30여 명을 초청한 교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을 '세계 평화의 도시'로 선언한 인천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행사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참전국 정상을 초청하는 국제적 행사로 격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 새 영토를 품다

10월 14일 인천시민들에게 새 '영토'가 생겼다. 단지 '땅'을 의미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새 시대를 열 신개념의 '문화 영토'다.

'인천시민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개항 후 140년 만에 내항 1·8부두 일부가 시민의 품에 안겼다. 시민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 공간은 1883년 외세에 의한 개항이라는 아픈 역사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에 개방된 공간은 재개발사업 대상인 내항 1·8부두 42만 9,000㎡ 중 6만 5,547㎡다. 보안구역으로 철책과 콘크리트로 가려졌던 곳이다. 이제 폐곡물 창고에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한 '상상플랫폼'을 비롯해 너른 잔디밭과 그늘막, 벤치 등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수변 공간을 낀 쉼터로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곳,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명소가 될 듯싶다.





행복한 인천의 얼굴들. 손성빈·김은숙·정기춘·문지연·최다영·이순석 시민(왼쪽부터), '시민소통시장실'에 참석한 후, '시민이 꿈꾸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함께 이야기했다.

300만 시민이 꿈꾸면,  
6인천시가 반드시 실현합니다



취재 영상 보기

‘더(The) 인천’을 더(More) 알아갑니다. 지금 발 딛고 선 도시, 살아가는 동네, 그 안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올해도 우리 시는 도전하고, 나아가고, 이뤄냈습니다.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고, 1,000만 인천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을 출범했습니다. 8년 전, 문학산 정상이 50년 만에 시민에게 열린 그날처럼 인천 내항 일부를 140년 만에 시민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쌓아 올린 인천의 역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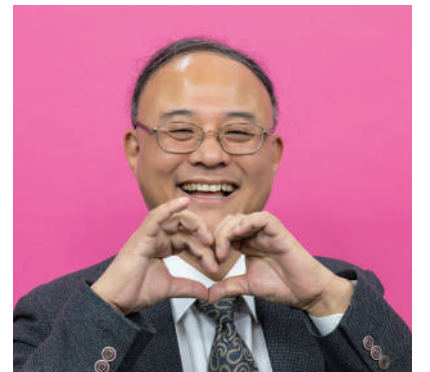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 시대. ‘시민이 바라고, 시민이 꿈꾸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은 무엇일까요? 시민 한 분 한 분 눈빛을 나누며 그 진심을 마음으로 들어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300만 시민이 꿈꾸면 인천시가 반드시 실현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 꿈꾸고 이루는, ‘세계 초일류도시’

김두환(59·인하대학교 연구교수)

“배다리시장 한복판에서 태어난 인천 토종입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로 대학 연구교수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는 먼저 자신을 ‘인천 사람’으로 소개한다. 나고 자라 애정이 넘치는 인천은 그에게 ‘기회와 도전의 땅’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인천은 20년 이내에 세계 5대 도시, ‘세계 초일류도시’가 됩니다. ‘올웨이즈 인천 all\_ways\_Incheon’. 세계 모든 나라가 인천을 통해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청년을 앞에 두는 시의 다양한 정책을 체감하면서 인천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바람이 더 있다면 시가 중장기 미래를 지속 연구하고, 시민을 위해 펼치는 좋은 정책을 잘 홍보하는 일. 꿈꾸고, 이루고, 도전하는 삶. 인천에서 눈뜨는, 그의 하루 하루는 매일 새롭다.



김두환(위),  
최다영 시민

## 세계로 날아오르는 하늘색 꿈

최다영(20·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학생)

“인천은 하늘이 정말 예뻐요. 특히 해가 뜨고 노을이 내릴 때 아름다워요. 인천에 살면서 하늘을 자주 바라보게 됐어요.” 맑은 암갈색 눈동자가 반짝인다. 그 안에서 스무 살 청춘의 빛나는 꿈과 내일을 본다. 2년 전만 해도 인천이란 도시를 몰랐다. 지구의 일원으로 세상 사람들을 돕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는 소망,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목에 인천이 있었다. 온 노력을 쏟아 인천글로벌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입학했다. “첫 꿈을 이룬 거죠. 인천 땅에 발 딛는 순간, ‘내 인생에 꽃이 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웃는 얼굴이 갓 피어난 꽃봉오리처럼 싱그럽다. “지금,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하나둘 실현하고 있어요. 올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을 때도 우리 학교 학생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했답니다.” 2023년의 끝자락, 그가 좋아하는 서쪽 하늘에 노을이 내린다. 오늘 지는 해는, 내일 더 빛나는 태양으로 떠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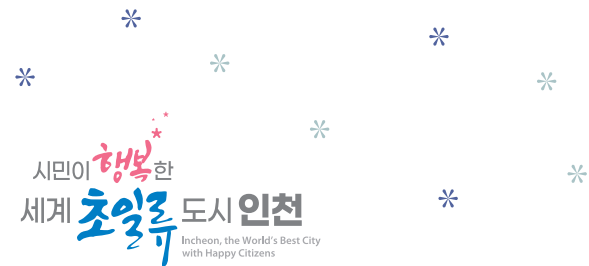


“인천은 ‘기회와 도전의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를 움직여, 단연코 ‘세계 초일류도시’가 됩니다. ‘올웨이즈 인천 all\_ways\_Incheon’. 세계 모든 나라가 인천을 통해야만 하는 날이 옵니다.”

“인천은 하늘이 정말 예뻐요. 그 하늘 아래서 외국 대학에 입학하며 내 첫 꿈을 이뤘어요. 인천 땅에 발 딛는 순간, ‘내 인생에 꽃이 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꾸면 꿈에 그치지만, 만인이 꿈꾸면 현실이 된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300만 인천시민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옵니다.



### 청년이 곧 미래다!

손성빈(32·시민행복정책자문단 청년위원장)

‘아, 인천은 정말 행복한 도시구나. 믿고 끝까지 미래를 함께 해도 되겠구나.’ ‘1,000만 애인愛人 소통 토론회’에서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위해 뛰는 시와 시민들을 만나고, 그는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뜨겁게 가슴에 품었다. 지난 1년간 시 정책을 돌아보면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통해 3,268명 인천시민이 뜻을 모으고, 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인천 청년으로서 시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쓴 일도 관심을 갖고 응원했다. “청년이 곧 미래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한 조각이 되어 인천의 꿈을 함께 맞춰가길 바랍니다. ‘올웨이즈 인천 all\_ways\_Incheon.’ 내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인천 청년이 앞장서겠습니다!”



손성빈(위),  
이순석 시민

### 미래를 펼칠 최고의 무대

이순석(20·청운대학교 학생회장)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스무 살에 처음 인천으로 왔다. 인천은 그 빛나는 청춘이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의미 있는 도시다. 친구들도 타지에서 온 그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할 내일을 기다리며 가슴이 설렌다. 부모님도 미래를 내다보고 일산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로 본가를 옮겼다. “하늘, 땅, 바다를 품은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청년들이 믿고 미래를 펼칠 최고의 무대이지요. 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동력 삼아 더 많은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일 청년의 밝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인천에서 펼쳐진다. “우리가 함께 꾸는 ‘인천의 꿈’,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 오직 인천



김은숙(위),  
장순규 시민

### 시민을 향한 진심, 늘 지금처럼

김은숙(71·전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장)

‘인천은 삶의 전부’이자 ‘뺨속까지 인천인’이라고 스스로를 이르는 사람. 그런 그도 ‘인천 짬뽕’이라는 소리에 가슴앓이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세계 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이 자랑스럽다. “외국에 가면 서울만큼 알려진 도시가 인천이에요. 허허벌판이었던 송도국제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200% 이상 발전했지요. ‘우리는 인천’,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서로 아끼고 보듬으며 더불어 살면 좋겠어요.” 인천 곳곳엔 그 삶의 시간과 추억이 서려 있다. 정당 현수막을 깨끗하게 걷어낸 동네 거리를 걷고, 강화도와 영종도에서 햇살보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가끔은 인천 어딘가에서 제 역할을 할 제자들을 떠올리는 삶. “시가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인천에 살아서, 인천시민이라서, 참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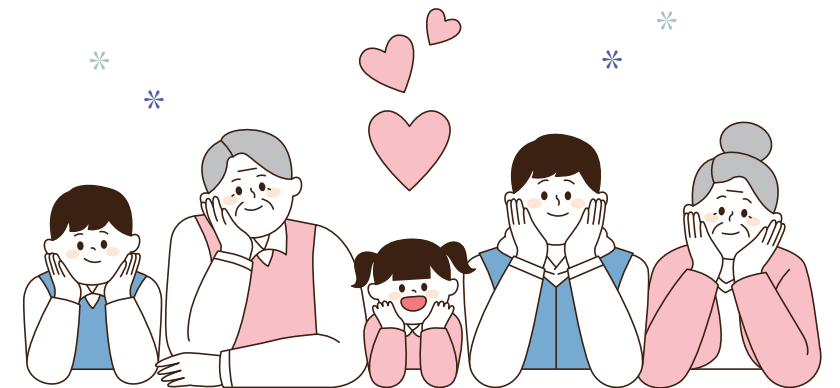
### 따뜻한 격려와 비판이 세상을 바꾼다

장순규(24·인천대학교 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터 살아온, 내 몸처럼 가족처럼 당연한 인천. 자신이 성장했듯이 인천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올해도 의미 있는 변화가 많았다.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화, 정당 현수막 정비,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 등으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졌다. 진솔하고 따뜻한 시의 소통 행보도 반갑다. 시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시민과 마음을 터놓고 인천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인천시민이 힘을 모아야 해요.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으로 시 정책에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시와 300만 시민이 함께라면 꿈은 현실이 된다.

“내 삶의 전부인 인천. 시가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아, 인천은 정말 행복한 도시구나. 믿고 끝까지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구나.’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위해 뛰는 시와 시민들을 만나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내일, 꿈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끈 역사와 300만 인천시민이 증명합니다. 지난 1년, 시는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 노을 지는 내항 바닷가를 거니는 일상 문지연(58·인천 중구 체육회 이사)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선 항상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다.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온 부모님은 하인천 부둣가에서 시작해 연안부두에서 평생 젓갈을 팔았다. 그도 대를 이어 젓갈 장사를 하며 바다와 맞닿아 살았다. 뱃고동 힘차게 울리는 깨어 있는 그 바다를 그는 사랑한다. 오늘, ‘제물포 르네상스’의 꿈이 넘실거리는 인천 내항 바다를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 동네 연안동을 비롯한 중·동구 일대가 활기 넘치는 원도심이 되길, 또 닿을 수 없던 바다를 되찾길 기다립니다. 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오늘, 인천 내항 일부가 140년 만에 시민 품에 안겼다. ‘노을 지는 집 앞 바닷가를 맘껏 거닐고 싶다’는 그의 소망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 김윤희(24·인천대학교 학생)

4년 전, 처음 만난 인천은 ‘새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하이라이즈 빌딩 숲 사이 분주함이 넘치는 도시, 그 사이를 전차회로처럼 누비는 도로, 그 사이 내일로 성큼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 가슴에 다가왔다. 올 한 해도 인천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곁에서 지켜보고,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가슴이 부듯했다. 앞으로도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더 높이 날아오르길 바란다. 인천에서의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



문지연(위),  
김윤희 시민

# 오로지 시민행복



이슬기(위),  
정기춘 시민

### 인천시민이기에 당연한 자신감 이슬기(42·문화예술단체 대표)

인천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제’이자 ‘오늘’이고 ‘내일’이다. 어린 시절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와 학창 시절을 보냈다. 훗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교육 환경이 좋은 인천으로 다시 왔다.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 속에 가족의 삶을 뿌리내렸다. “우리 가족, 아이들이 인생의 빛나는 시간을 인천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도시가 특별하고 애뜻하게 느껴진답니다.” 인천에 살면서 누리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품은 대도시이자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인천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롭다. “오늘 인천을 만든 건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펼쳐나갈 미래엔 인천이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오늘 인천을 만든 사람들 정기춘(65·봉사 활동가)

사회의 일원이자 가장으로 평생을 부단히 살아왔으리라. 자신을 ‘국가와 시의 혜택을 받는 65세 인천시민’이라고 소개하는 사람. 그의 말에 의하면, 젊은 시절 서울에서 ‘잘나가는’ 영상사업단에서 일하다 인천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인천과 연을 맺었다. 나이 들었다고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그의 시선은 미래를 향한다. “시가 선이 굵은 미래지향적 정책을 세우고 힘 있게 추진해서 믿음이 갑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시 정책이 가슴이 와닿아요.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오늘, 최초로 넘어 최고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인천. 그 중심엔 저마다 삶의 역사를 써 내려온 인천 사람들이 있다.

“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요. 인천 내항 일부 개방을 시작으로, 인천시민이 바다를 되찾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시가 선이 굵은 미래지향적 정책을 세우고 힘 있게 추진해서 믿음이 가요.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행복한 인천의 얼굴들. 김두환·최다영·김윤희·문지연·이순석 시민(왼쪽부터)과 유정복 인천시장. 한 방향을 바라보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는 인천’이다.







열우물 야경3 | 120호 | 종이에 수채

이진우 작가는 마을에 화실을 두고 1997년부터 꼬박 20년 동안 열우물마을을 담아냈다.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희망의 두레박을 길다, 열우물마을

골목을 걷는 것은 동시대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그 안에 우리네 삶의 오늘과 내일, 어제가 있다. ‘골목길 TMI’는 골목의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번 호에는 동암역 북광장에서 열우물경기장 사이 언덕을 지나 함봉산 안자락에 안긴 열우물마을의 고아한 풍경을 따라 걸었다. 수백 년 역사와 이야기가 고여 있는 우물가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새로운 역사와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 달동네의 온기

—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 열우물 벽화마을. 땅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산꼭대기까지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다. 본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야산에 1960년대 후반부터 도화동, 용현동, 울도 등에서 철거민이 몰려들어 집을 짓고 솔단지를 걸었다. 1970년대엔 주안국가산업단지가 생기며 도시 노동자들로 북적였다. 가파른 골목을 올라 도달하는 지상의 가난한 집, 살림은 어려웠지만 삶은 어렵지 않았다. 마당이 곧 길이 되고,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는 한 뼨 앞마당에서 주민들은 서로 기대어 살았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릴라치면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였던 골목은 늘상 왁자지껄했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괜한 참견을 건네도 이상하지 않았다. 시간의 켜가 층층이 쌓인 그 동네는 지금 인천에서 가장 넓고 높은 아파트 숲이 되었다. 19만 2,687㎡ 규모에 총사업비 1조 1,621억 원이 투입돼 2022년 완공된 뒤 5,678가구, 1만 4,000여 명이 입주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조. 1997년부터 꼬박 20년을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니 길이 헛갈리네요.” 마을에 화실을 두고 희망의 벽화를 그렸던 이진우(59) 작가는 오늘 단지 안의 특별한 조형물을 보러 왔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한 이곳엔 달동네의 생활 유산들이 작품이 되어 남아 있다.

“물도 잘 안 나오는 달동네에서 우물은 생명수였어요. 우물 청소도 하고, 타일도 곱게 붙여줬는데.” 아파트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마르지 않는 샘물’. 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앞에서 이진우 작가는 옛 추억을 떠올린다. 그의 얼굴에 열은 미소가 번진다. 달동네는 사라졌지만, 지난 한 세기 공동체를 따스히 품었던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또는 누군가의 인생 속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열우물 벽화마을의 옛 모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걸린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이진우 작가



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마르지 않는 샘물’. 단지 곳곳에 달동네의 생활 유산을 품은 작품 10점이 전시되어 있다.



## 마르지 않는 우물



큰우물가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 개발이 비껴간 곳, 윗열우물마을. 마을 사람들은 두레박 하나 가득 찰랑찰랑 물을 길어 올리는 게 복을 길어 올리는 것이라 믿었다. 좋은 우물 근처엔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고, 우물을 향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기도 했다. 마을에는 이름에 걸맞게 수십여 개의 우물이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 우물 하나 파기에도 온 마을 사람이 서둘러 몇 달이 걸렸는데, 이 마을에서는 혼자서도 몇 시간이면 우물을 팔 수 있어 풍요로웠다. 마당, 안뜰, 심지어 밭두렁에서도 물을 길어 올렸다. 그중 십정동 고래우물(십정동 79번지)은 윗열우물마을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 열우물경기장 부지로 논의 수용되기 직전까지, 수백 년간 고래우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박흥서(75) 씨는 “1964년에 든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없어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아랫마을 사람들이 고래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일도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이번엔 큰우물로 발길을 옮긴다. 양지우물(여우재로 26번길 49-53)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든다. “배추도 씻고, 빨래도 하고, 한여름엔 등목도 많이 했지.” 우물물을 퍼올려 순무를 씻고 있는 주민이 추억을 풀어낸다. 박흥서 씨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우물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담한 한옥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우물,  
찬 바람 끝의 까치밥 홍시...  
함봉산 안자락에 안긴 윗열우물마을엔  
고아한 풍경이 웅숭깊게 들어앉아 있다.



대대손손 터를 지켜온 사람들

## 함봉산 안자락, 웅숭깊은 마을

— 아담한 한옥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우물, 찬 바람 끝의 까치밥 홍시..., 함봉산 안자락에 안긴 윗열우물마을엔 고아한 풍경이 웅숭깊게 들어앉아 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 산과 논밭만 펼쳐졌던 호젓한 시절이 잠잠히 머문다. 수백 년 변함없는 풍경과 순수한 인심 뒤에는 긴 세월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반남 박씨 세양공파 27대손 박흥서 씨는 말한다. “윗열우물마을은 집성촌이에요. 창녕 성씨(昌寧成氏), 반남 박씨(潘南朴氏), 능성 구씨(綾城具氏), 영월 신씨(寧越申氏) 일가가 모여 살며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켰죠.” 여전히 이곳엔 성씨와 박씨가 많다. 창녕 성씨 회곡공파 참의공 종중(宗中)에 따르면 세조 2년(1456년) 병자사화 때 성씨 문중이 화를 피해 성습지 등 일곱 가정이 마을에 정착한 뒤 560여 년 세거지(世居地)가 되었다 한다. “2006년까지 128가구가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반들반들 윤이 나는 서까래와 마자 마당을 둔, 수백 년 묵은 기와집이 속절없이 사라졌다. 새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빌라를 올렸다. 그래도 마을엔 발길 닿는 곳마다 옛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물에선 여전히 물이 샘솟고, 여기저기 손질을 한 개랑 한옥도 제 나름 세월의 멋을 풍긴다. 가파른 세상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대손손 터를 지켜온 사람들의 순박함도 여전하다. “내가 태어난 집, 함께 자란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 위로 햇살이 퍼진다. 느릿느릿, 열우물마을의 계절이 깊어간다.



뒤뜰에 오래된 우물을 품고 있는 고택



창녕 성씨 종갓집의 안뜰엔 돌을 박아 치장한 우물이 남아 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고래우물



마을 안자락에 자리 잡은 ‘열우물가게’엔  
400여 종의 독창적인 우리 술이 저마다의 색과 향을 낸다.  
우리 술이 이렇게 다채로웠나. 보는 것만으로도 흥이 오른다.



전통주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 술로건은 단 전통주 전문 매장 열우물가게



마을 안자락에 뚝심 있게 세운 술집. 그 안에서 힙한 전통주를 빛내내는 김보성 대표의 꿈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K-전통주를 만드는 것이다.



김 대표가 기획한 증류주 ‘하늘 아래서’, 단감을 베이스로 만든 부드러운 술로, 가수 김민종의 노래 ‘하늘 아래서’에서 이름을 따왔다.

농익어가는 ‘K-전통주의 꿈’

— 술이란 그 곡식이 뿌리를 내린 뒤 무르익는 환경과 날씨, 풍경까지도 오롯이 담겨 완성되는 것. 전통주 전문 매장 ‘열우물가게’의 김보성(46) 대표는 열우물마을의 고즈넉함에 반해 두 해 전 이곳에 매장을 열었다. 세월 묵은 고택에 윤을 내고, 향기로운 전통주를 가득 채웠다.

“이곳은 쇼룸이자 아이디어 창고입니다. 400여 종의 독창적인 우리 술을 만날 수 있어요.” 그의 뒤로 알록달록한 유리병에 담긴 증류주와 우리 과일로 만든 와인, 막걸리와 청주 등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낸다. 우리 술이 이렇게 다채로웠나. 보는 것만으로도 흥이 오른다.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도 이곳에서 숙성한다. 그가 기획한 술 소개를 부탁하자 ‘김보성 의리남 소주’, 가수 김민종의 히트곡을 주제로 한 ‘하늘 아래서’, 해병대가 주인공인 ‘팔각모 사나이’ 등 요즘 술판을 뒤흔든 주인공들이 술술 나온다.

마을 안자락에 뚝심 있게 세운 ‘술집’, 그 안에서 힙한 전통주를 빛낸 그의 족적 足跡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롯데아사히주류, LG상사 와인사업부를 거쳐 못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전통주를 마시던 때부터 전통주의 매력에 취해 산 세월이 15년이다.

“요즘 전통주 몸값이 높아져 흐뭇합니다. 개성 있는 양조장의 성장도 눈에 띄고요.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는 올 초 ‘열우물양조장’을 열었다. 전통주 유통을 넘어 기획, 생산에 도전장을 낸 것. 양조장에서는 올해 초 ‘열우물소주25’를 생산했고, 강화의 특산물을 베이스로 한 ‘인천 고구마 소주’를 생산할 계획이다.

“‘글로벌 주당’들을 우리 술에 취하게 만들 겁니다. 전 세계에 수출해 사랑받는 K-전통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K-주당 김보성. 그의 눈에서 반짝 빛이 난다. 세계로 뻗어나갈 K-전통주의 씨앗이 열우물마을에서 쑥쑥 여물어가고 있다.





묵묵히 이어가는.  
한 예인<sup>藝人</sup>의 길

여기, 140여 년간 이 땅에 뿌리내린 서양음악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있다. 이승묵, 이를 ‘승<sup>承</sup>’, 묵묵할 ‘묵<sup>默</sup>’이라는 이름처럼 근대음악 한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왜 음악을 하는가’, ‘이상적인 음악은 존재하는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 악기를 다루고, 무대를 선보이고, 음악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물음표가 가슴을 찢었다. 이승묵의 음악 전시 <이승묵 예인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전시는 옛 예인의 자취가 깃든 용동 권번<sup>券番</sup> 터에서 홀연히 떠올랐다 사라졌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 예인의 가슴에 여전히 질문을 남긴 채.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 # 예인관 : 藝人觀

### 예인, 세상을 바라보다

“악기를 배우면 멋진 중학생이 될 수 있단다.” 어느 날 어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드럼 스틱을 손에 꼭 쥐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교본을 찾아 헤매다 교향악단의 문을 두드렸다. 클래식 타악기를 운명처럼 만났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시간은 멈춰버렸다. 이대로 음악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고민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가 용기를 주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한 음악을 하거라.”

대학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팀파니스트로 처음 무대에 오른 날, 슈만 교향곡 제4번을 연주했다. “승묵아, 공연 잘 봤다.” 아버지는 말없이 찾아와 아들의 무대를 지켜봐 주었다. 이를 ‘승<sup>承</sup>’, 묵묵할 ‘묵<sup>默</sup>’, 그렇게 이승묵(38)은 이름처럼 음악가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인천 개항기에 꽃핀 음악을 찾아, 이 시대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겠다.’ 교향악단을 나와 2015년 ‘인천콘서트챔버’를 창단했다. 음반 <인천근대양악열전<sup>仁川近代洋樂列傳</sup>>과 <인천학도의용대가>, 올해 말 세상의 빛을 볼 <Reimagined: INCHEON>에 이르기까지. 잊혀가는 근대음악을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다.

<이승묵 예인관>은 음악 전시다. 근대음악 연구가 이승묵의 예술적 가치관과 인생 행로를 그렸다. 공간 1층의 예인관<sup>藝人館</sup>은 예인의 관점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음악가의 길에 들어서고, 연주자로 성장하며, 근대음악에 빠져들기까지, 한 예인이 걸어온 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 예인관 : 藝仁館

### 어질게 기예를 행하다

‘왜 음악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 처음 악기를 손에 쥐 날부터 무대 너머의 세계로 다다르기까지,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공간 2층의 예인관<sup>藝仁館</sup>은 ‘어질게 기예를 행하는’ 예인에 관한 이야기다. 연주자의 방을 시작으로 연구자의 방을 지나 기획자의 방을 건너, 마침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 ‘예인관’에 다다른다. 공간 한편엔 2015년 열린 인천콘서트챔버의 첫 공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연 포스터가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음악을 사랑한 한 소년이 음악 안에서 성장하기까지 하얗게 밤을 새운 날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음악가는 악보로 음악을 전합니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음악에 물성<sup>物性</sup>을 부여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성을 찾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창작 욕구를 쏟아붓게 만드는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음악 밖에서도 예인 이승묵의 음악적 사유는 계속된다.

1. 전시 공간 '예인관<sup>藝仁館</sup>'에서 이승묵. 예인관은 그가 대표로 있는 인천콘서트챔버가 개항장에 준비하고 있는 상설 공연장의 이름이다. 청람 전도진 선생이 현판 글씨를 써주었다.
- 2.3. 연주자의 방에서 연구자의 방을 지나 기획자의 방을 건너는 이승묵. 그렇게 근대음악 한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 인(人)에서 인(仁)으로  
예인藝仁으로 인생仁生을 살아가다

그 옛날 분 향기 짙게 흘러나오던 골목엔, 오늘 바람만 고요히 인다. 힘으로 밀어붙인 개항, 권번의 역사는 더 빠아왔다. “그 시대의 여성 예인들은 풍류를 주도하면서도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龍洞券番용동권번, 昭和<sup>소와</sup> 四年<sup>4년</sup> 六月<sup>6월</sup> 修築<sup>수축</sup>’, 오늘 남은 권번의 흔적은 돌계단에 새겨진 글 한 줄이 전부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예인관을 지어야만 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인으로서 옛 예인의 숨결이 깃든 권번 터에서 음악 세계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권번 계단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려야 했습니다.”

전시 공간을 찾아 봄부터 권번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골목을 돌고 돌아 이른 곳은 계단 바로 위에 자리 잡은 오래전 문을 닫은 한 여관. ‘위해객잔<sup>威海客棧</sup>’이라는 중국식 이름이 붙은 텅 빈 공간엔 공허가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주인을 수소문해 잠시 빌려달라 사정했다. 건물은 한 달간 그의 것이 되었다. 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 새벽빛이 밝아올 때까지 망치질을 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연이 머물다 갔을 빈자리에 한 예인의 삶이 채워져갔다.

지난 10월 말, 마침내 <이승묵 예인관> 전시가 세상에 나왔다. 관람객에게 단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여정은 짧지만 긴 여운으로 남았으리라. 전시가 끝나고 이승묵은 빈 공간을 남긴 채 미련 없이 떠났다. 스스로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하나 분명한 건, 삶도 음악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비로소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이다. “단음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화음을 이루면 음악이 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인생이 충만해지지요.” 예인藝仁이 아닌 ‘예인藝仁’으로, 인생仁生이 아닌 ‘인생仁生’을 살고 싶습니다.”

인천, ‘인仁’에는 두 사람이 있고, ‘천천’에는 세 사람이 있다. 사람의 도시, 인천에서 한 예인藝仁의 인생仁生으로 삶을 반추했던 시간. 공간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1

- 1. <이승묵 예인관> 음악 전시. 오래전 문 닫은 여관을 한 달간 임대해 공간을 꾸렸다. 2주간 전시를 하고, 지금은 사라졌다.
- 2. 공연 포스터로 채운 전시장 벽면 앞에 선 이승묵. 음악을 사랑한 한 소년이 음악가이자 연구자로 성장하기까지 날들이 펼쳐진다.

예인藝仁이 아닌 ‘예인藝仁’으로,  
인생仁生이 아닌 ‘인생仁生’을 살아가는 일.

단음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화음을 이루면 음악이 된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인생이 충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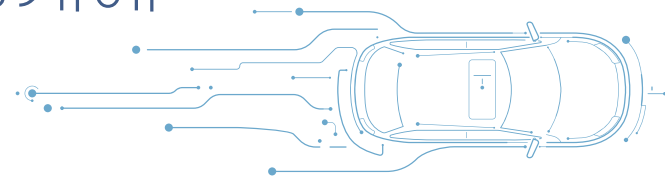


2





# 상상과 현실의 경계에 인천이 있다



사람 얼굴 형상을 한 둥근 달의 오른쪽 눈에 로켓이 박혀 있다. 1902년 개봉한 <달나라 여행>의 포스터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67년이 지나 인류는 실제로 달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영화가 현실이 된 사례는 흔하다. 로봇을 비롯해 휴대전화, 태블릿 PC, 인공지능(AI), 생체인식기술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은 항상 스크린에서 먼저 선보이곤 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스크린을 뚫고 현실 세계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영화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백령도 주민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인천 도심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글 임성훈 본지 편집장 | 사진 박재현 포토그래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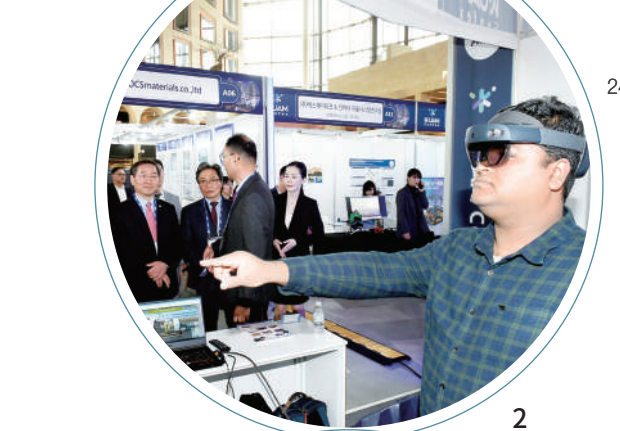
1. 인천 도심과 섬을 오가는 UAM이 백령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이미지 속 기체 모델은 인천의 ㈜숨비가 개발한 'PAV')
2. '2023 K-UAM 콘펙스' 전시관에서 ㈜증강지능 관계자가 가상공간에서 보잉747 항공기를 정비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3.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23 K-UAM 콘펙스'에서 전시한 미래비행체 모형

## 모빌리티 상용화가 오케스트라 산업이라 불리는 까닭은?

사실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영화에서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하늘 운항에 최적화된 모빌리티(Mobility, 기체)를 만들어야 한다. eVTOL<sup>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sup>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기체다.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과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첨단기술이 집약되어야 한다. 성능, 비행성, 진동, 강도, 구조, 안전성 등 충족 요건이 지상의 자동차와는 비교가 안 된다. 현재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져 있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모빌리티가 완성됐다고 끝이 아니다. 모빌리티 정류장인 ‘버티포트<sup>Vertiport</sup>’를 만들고, 모빌리티가 다닐 하늘길도 뚫어야 한다. ‘회랑(Corridor)’으로 부르는 공중 도로를 내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신호체계는 물론 관제 및 운항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당연히 고속도로 등 지상의 교통 인프라보다 진일보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기술이 다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2차원이라면, 모빌리티가 다니는 도로는 3차원 공간이다. 지상의 도로와 ‘차원’이 다르다. 당연히 3차원 공간의 교통 흐름을 제어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안전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기술적, 법률적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술 부문만 하더라도 기계공학, 전기·전자, 통신, 에너지 등 거의 전 산업 분야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비로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오케스트라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확하게 조율된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흡사하다. 한 악기라도 음을 이탈하면 교향곡 연주를 망칠 수밖에 없다.



2



3

우리 시가 바로 그 오케스트라의 악장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지휘자는 정부다. 악장이 단원들의 의견과 음악적 방향에 대해 소통하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간 가교 역할을 하듯이 인천이 미래 교통 시스템의 참여 주체를 아우르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악장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대표곡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분야 콘펙스’다.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저소음·친환경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장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를 말한다. 콘펙스는 콘퍼런스와 전시회의 합성어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매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콘펙스’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의 최대 규모의 UAM 분야 콘펙스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3 K-UAM 콘펙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거스(Global UAM Regional Summit, GURS)’와 공동 주최로 열렸다. 거스는 글로벌 도시·공항·대학·기관 등이 함께하는 도심항공교통 국제협력체로 우리 시가 주도해 결성됐다. 올해 행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업융합원, 인하대학교, 미국 도심이동연구소(Urban Movement Labs) 등 국내외 도심항공교통 분야 11개 전문 기관이 주관했다.



## 도시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

도심항공교통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해 미래 혁신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 우리 시는 ‘도시와 인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는 콘펙스 주제에 걸맞게 UAM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인 기체 개발자, 운영사업자, 기관, 도시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개막식에선 UAM 글로벌 기관 간 세 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현대건설, KT 등이 ‘컨소시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UAM 공항서를 노선 개발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특히 거스에는 미국 어바인시, 영국 클렌필드대학교, 독일 항공우주 연구센터(DLR), 덴마크 오펜세시 등 5개 기관이 신규 가입, 회원이 15개 기관으로 늘었다.

6개 세션으로 나눠 36개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도 각국 UAM 관계자와 전문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UAM 상용 서비스가 시

행될 예정인 것과 맞물려 ‘2024 파리 올림픽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프로젝트’ 세션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연구 분야에서도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협업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연계하는 기술’, 증강현실을 이용해 미등록 드론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 국내 유명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발표한 신기술이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전시관에도 인파가 북적였다. 40여 개 관련 기업이 꾸린 전시관은 ‘도심항공교통이 구현된 미래 도시와 기술’을 테마로 ‘도심항공교통 생태계관’ 등 4개 관으로 구성됐는데,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다자간 도심항공교통 관련 미팅과 업무협약 행사를 연결해 주는 비즈살롱(Biz-Salon)을 비롯해 테크마켓(Tech Market), 도심항공교통 아카데미,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양성사업 성과 교류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 인천, UAM을 넘어 AAM으로

“머지않아 UAM이 주도하는 하늘 교통 시대가 옵니다. 도심의 교통정체 해소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도심항공교통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K-UAM 콘펙스를 통해 확인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공항과 관련 산업, 대학과 연구소 등 기반을 갖춘 인천시가 바로 UAM 시대를 선도할 것입니다.”

- 유정복 인천시장, ‘2023 K-UAM 콘펙스’ 개막식에서

우리 시가 이처럼 3년 연속 콘펙스를 개최하는 등 UAM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UAM은 도심과 광역 그리고 섬 지역의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수도권 배후 수요와 다양한 섬이 있는 도시다. UAM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미래 교통 청사진은 UAM에 머물지 않는다. UAM보다 확장된 개념의 미래형 교통체계인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항공교통) 체계를 통해 인천 도서 지역 및 육지 간 일일생활권을 확보하고 인천 및 수도권 도심 간 초고속(30분)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K-UAM 그랜드 챌린지 인천 도심 실증노선 전용 지도,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실증사업으로 내년에 인천의 청라-아라뱃길-계양 구간에서 비행 시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미국의 항공 전문 비영리 연구 기관인 MITRE, 항공우주산업융합원과 함께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으로 AAM 체계 구축 및 상용화에 이정표가 될 <인천광역시 AAM 운용개념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운용개념서를 발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천이 최초다. 운용개념서에는 백령도 주민이 AAM을 이용해 인천 내륙으로 이동하는 내용의 가상 시나리오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제 미래 교통의 패러다임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늘을 이용한 교통 시스템은 도시 공간 구조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체와 자동차 제조사 등 각국 정부와 유수의 기업이 UAM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2040년에는 전 세계 UAM 시장이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도시화율이 2050년 86.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교통·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UAM이 우선 꼽히고 있다. 정부 또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인 ‘UAM 팀코리아’를 지난 2020년 6월에 조직,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에는 ‘K-UAM 그랜드 챌린지’의 1단계 실증사업으로 전남 고흥의 상공에서 비행 시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제 내년에는 청라-아라뱃길-계양을 잇는 인천의 하늘에서 2단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그랜드 챌린지 인천 도심 실증 노선 전용 지도 참조) UAM의 선도 도시 인천에서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강화 속노랑고구마 '쫄쫄 갈비찜'

잔잔한 맛, 잔잔한 그리움



‘쫄쫄 갈비찜’ 달콤한 강화 속노랑고구마와 부드럽게 찐 돼지갈비의 환상적인 조화



한식당 '잔잔한 식탁'이 있는 강화군 온수리 길상마을

인천 오감 레시피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완성하는 오감 만족 레시피. 겨울로 가는 길목, 수더분한 땅 빛 좇아 강화로 간다. 온수리 길상마을 골목에 자리 잡은 한식당 ‘잔잔한 식탁’. 3년 차 강화 청년 이종훈 대표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린다. 오늘 식탁에 오른 주인공은 ‘쫄쫄 갈비찜’. 강화 속노랑고구마와 함께 부드럽게 찐 돼지갈비는 양념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맛이 담담하면서도 깊다. 문득 강화 땅이 생각날 때면 함께 떠올라 그리울 맛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요리 이종훈 '잔잔한 식탁' 대표 | 스타일링 강지인

시간의 층이 쌓이고 쌓인 온수리 길상마을,  
그 동네 골목에서 만난 한식당 ‘잔잔한 식탁’.

3년 차 강화 청년 이종훈 대표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같은  
따뜻한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고 있다.

맞은편 오래된 양조장에선  
전통주가 느릿느릿 향기롭게 익어간다.



### 맛으로 기억될, 느린 시간 속 마을

강화도는 그 어디에든 시간의 층이 무수히 쌓여 있다. 온수리 길상마을. 가까이엔 천년 고찰 전등사(傳燈寺)가 있고, 1906년에 지은 한옥 성당이 있다. 이 오래된 성당에선 하루 세 번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동네엔 백 살이 훌쩍 넘은 초등학교가 있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양조장도 있다. 이 마을에선 음식에도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가 깃든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한식당 ‘잔잔한 식탁’. 맞은편 오래된 양조장에선 전통주가 느릿느릿 향기롭게 익어간다. 주인장은 술잔에서 ‘잔’을 따고, 누구나 여행길에 들러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라는 의미로 ‘잔잔한 식탁’이라 가게 이름을 지었다. 이종훈(35) 대표는 3년 전, 태어나 처음으로 강화 땅을 밟았다. 요리 경력 15년에 ‘내 가게’를 꿈꾸던 그는, 강화에 온 지 단 2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루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코로나19가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 때였다. 그럼에도 용기를 낼 수 있던 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TLocal아이로컬’에 선정된 덕분이기도 하다. 그는 강화군의 고유한 콘텐츠를 알리는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지역과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커져만 간다.

“강화도는 산과 들, 바다와 갯벌마다 식재료가 넘쳐납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바닷바람, 깨끗한 토양도 맛을 무르익게 하지요. 그 귀한 식재료로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떠올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파스함으로 ‘인천의 맛’을 알리겠습니다.”

정성을 담은 음식은 힘이 있다. 먹고 나면 온몸에 온기가 돌고 마음에 행복이 차오른다. 그리고, 그리움으로 남는다. 강화도의 오래된 마을 한 작은 식당에서, 맛으로 기억될 추억 한 조각을 음미한다.

잔잔한 식탁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71층, 0507-1324-5008





요리에 진심인, '잔잔한 식탁' 이종훈 대표



## 강화 할머니도 인정하는 '집밥'

동네 어르신들도 '그때 그 시절에 먹던 맛'이며 맛의 깊이를 인정한다. “관광객도 많지만 동네 분들도 식당을 자주 찾으세요. 단골인 두 할머니께서 지팡이 짚고 오셔서 김치찌개를 드시고 가시는데, 그분들 칭찬이 어느 요리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보다 기분 좋아요.”

맛도 맛있지만, 노인들만 남아 빛바랜 풍경을 지키던 마을로 찾아와 준 청년이 기특해 어른들께서 마음 써주는 것이리라. 직접 기른 배추며 무며 농작물을 먹어보라고 가져다주는 일도 많다. 강화 땅에서 나는 귀한 식재료에 마음을 다해, 그는 오늘도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린다.

잘 익은 김치와 돼지 앞다릿살, 강화 사자발약썩을 함께 푹 찐 '썩썩 김치찌개', 소스를 발라 숙성시킨 돼지고기에 불맛을 제대로 입힌 '썩썩 제육볶음'. '썩썩 갈비찜'은 강화 속노랑고구마와 함께 부드럽게 찐 돼지갈비에 양념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감칠맛이 돈다. 여기에 강화 쌀로 지은 뜨끈한 밥과 국을 곁들이니 어떤 밥상도 부럽지 않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지요.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에 갈비찜을 얹어 먹고, 남은 국물에도 썩썩 비벼 먹어보세요. 가슴속까지 든든하답니다.” 전통주 한잔까지 곁들이니 맛의 풍성함이 더하다. 정성스러운 한 끼 식사로 일상에 행복이 차오른다.

### '썩썩 갈비찜'

강화 속노랑고구마와 함께 부드럽게 찐 돼지갈비에

양념이 은은하게 배어들어 감칠맛이 돈다.

강화 쌀로 지은 뜨끈한 밥을 곁들이면 행복한 밥상 완성.



#### 썩썩 갈비찜 재료(3~4인분 기준)

돼지갈비 2kg, 양파 1/2개, 사과 1/2개, 다진 마늘 80g, 간장 200ml, 설탕 80g, 콜라 500ml, 후춧가루 약간

#### 갈비찜 채소

강화 속노랑고구마 3개, 당근 1/3개

## '썩썩 갈비찜' 레시피 특별 공개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도,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아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마음마저 든든히 채워주는 맛.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이번 요리는 강화도 온수리 길상 마을에 자리잡은 한식당 '잔잔한 식탁'에 오르는 '썩썩 갈비찜'이다. 부드러운 숙성 돼지갈비와 다디단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이루는 맛의 조화. 이 식당의 이종훈 대표가 강화도에서 나는 귀한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 개발했다. 행복 한 스푼, 사랑 두 스푼 담은 요리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 만들기

- ① 돼지갈비를 흐르는 물에 1~2시간 담가 핏물을 뺀다.
- ② ①을 채반에 받쳐 물기를 뺀다.
- ③ 사과는 껍질을 깎고 씨를 제거한 후 잘게 자른다. 양파도 잘게 자른다.
- ④ 양파와 사과에 콜라를 넣고 함께 간다.
- ⑤ 당근은 4등분한 뒤 0.8cm 두께로 자르고, 고구마는 모양을 살려 1cm 두께로 자른다.
- ⑥ ②의 갈비에 ④와 설탕, 간장, 다진 마늘, 후춧가루를 넣고 하루 동안 숙성시킨다.
- ⑦ 숙성된 ⑥의 갈비를 압력밥솥에 넣고 찌다가 추가 울리기 시작하면 20분간 더 찐 뒤 불을 끄고 김이 빠질 때까지 뜸을 들인다.
- ⑧ ⑦의 갈비에 고구마와 당근을 넣고 5분간 더 찐다.
- ⑨ 접시에 담고 깨를 뿌려 낸다.

### '시민 셰프'를 위한 '썩썩 갈비찜' 요리 Tip

명절이나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갈비찜.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자. 갈비찜은 소나 돼지의 갈비에 양념을 넣고 간한 뒤 국물을 붓고 찌서 만드는 요리. '썩썩 갈비찜'은 강화도 특산물 속노랑고구마를 넣고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해 달콤한 감칠맛이 돈다. 속노랑고구마와 함께 밤, 감자를 같이 찌 먹어도 맛있는데, 이들 재료는 고기를 먼저 찐 후에 삶아야 무르지 않고 식감이 적당해진다. 돼지갈비는 기름기와 피를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 또 양념에 재운 돼지갈비를 하루 동안 숙성시킨 뒤 압력밥솥에 푹 찌야 육질이 부드럽고 촉촉하다.



## 요즘, 봉사 활동

#좋아하는 일과 재능 나누기  
#덕업일치 봉사  
#1365 자원봉사 포털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 가치를 찾았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벽화 봉사단, 반려동물 봉사단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활동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안겨 준다”라고 말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1365자원봉사포털’에 방문해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재능을 살포시 꺼내 보자. 봉사는 남보다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올 한 해 동안 전국의 250만 자원봉사자가 경제불황과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 ‘안녕한 사회’를 책임졌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에도 나눔의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김장 담그기, 벽화 그리기, 독거노인 이불 빨래하기 등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다정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정을 나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언택트 봉사 활동이 알려지며 한 발 뒤에서 이웃을 돕는 활동가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사랑 한 줌, 희망 한 줌으로 세상을 밝히는 요즘 봉사 활동 풍경을 살펴본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허정인 포토그래퍼



### — 유기견 산책 봉사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돌봄 활동가들의 손길이 절실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찾는 이가 늘고 있지만 ‘유기견 없는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소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유기견 보호소 ‘도로시지켜줄개’, ‘행복하게쉼터’ 등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주말 산책 봉사를 할 수 있다. 산책 코스와 시간,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

### — 벽화 그리기 봉사

간석동의 조붓한 골목길에 한 무리의 청년이 모였다. 체감 온도 영하의 깜짝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회색 빌라촌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는 이들의 정체는 ‘우벽봉(우리 동네 벽화 봉사단)’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오래된 골목, 보육원, 법원 등 곳곳을 벽화로 환하게 밝혔다.

흰 바탕을 채우고, 구성안대로 스케치를 잡아 필요한 색을 조합한 뒤 그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사다리에 올라가 높은 담장을 채색할 땐 다리가 후들거린다.

지난해 120시간 넘게 봉사 활동을 한 이현형(37) 씨는 5년 전 첫 봉사 활동 현장이 우범 지역이었다며, 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뿌듯하다고 한다. “의미 깊은 하루의 끝, 잠자리에 들면 몸은 고단해도 뿌듯함이 밀려와 단잠을 잔다”며 환하게 웃었다.





— 인천 김장 나눔 대축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 말, 인천애뜰에 빨간 색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김장 부대가 출동했다. 260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칼바람에도 아랑곳없이 4,300상자의 김장을 담가 이웃과 나눴다. 이날의 열기는 겨울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다.

행사에 참가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김장 나눔 대축제”는 기업,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보담당관실



#행복한 내일을 믿는  
#행동과 자원봉사 #봉사근육 만들기

고단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살만하다. 김장 담그기, 어르신 이불 빨래하기, 집 고치기, 야학 봉사 활동 현장에서 만난 행동과 자원봉사자들은 맹추위에 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변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희망 한 줌을 이웃에게 전한다.

— 이불 빨래 봉사단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로 지역의 종합복지관, 보호센터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김관택(49) 씨는 지난해 ‘이불 빨래 봉사단’을 꾸렸다. “어르신 집에 들어서면 코가 먼저 반응해요. 힘에 부치거나 세탁기가 고장 나 이불 빨래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낙후된 지역의 집은 세탁기를 들일 공간조차 없어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비탈진 골목의 쪽방촌, 오래된 빌라를 몇 군데 돌며 이불을 수거하자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도심의 공기를 채운다. 봉사단은 매달 한 번 동구의 빨래방에 모여 어르신들의 이불자리를 세탁·건조한다. 보송보송한 이불을 들고 빨래방을 나오는 길, 주인이 ‘고생한다’며 케이크를 건넨다. “나눔은 나눔을 낳는다고 하지요. 어찌면 이 작은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더 많은 사람이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됐다.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창문, 화장실, 전등 교체 등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수리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총 14년 동안 1만 1,000여 척약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인테리어플러스봉사단’의 김충한(47) 씨는 서구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그동안 수백 가구를 수리했다. 몸은 고되지만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동참을 원하는 전문가 및 후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Since 1974, 용마루학교 야학 봉사

‘배움에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다’라는 교훈 아래, 1974년 개교한 야학교 용마루학교는 만학도의 새로운 삶에 동행하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에 매진하는 40~70대 학생들을 인학대학교 봉사 학생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가르친다.

박미소(21) 용마루학교 교장은 “배움으로 새로운 삶을 여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몽글하다”며 “누구나 배우러 올 수 있고, 특별 수업 등을 통해 교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용마루학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언택트 봉사 활동 #느슨한 연대감

온라인이 ‘요즘, 봉사 활동’의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선한 댓글 달기 등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줍깅, 신생아 털모자 떠서 보내주기 등 비대면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작은 결심으로 시작해 나와 이어진 누군가와 느슨한 연대감을 갖고 지속할 수 있는 언택트 봉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 비대면 봉사활동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접속하면, 다양한 자원봉사 모집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한 댓글 달기, 자원봉사 활동 리뷰 등 비대면 봉사도 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된다. 네이버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그린웨일 캠페인은 네이버 메일함 정리, 브라우저 캐시 삭제 등을 도와주는 사이트로 웨일 브라우저 사용만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 시민 작가가 포착한 아름다운 인천 공원의 사계절

인천에는 1,100개가 넘는 푸르른 공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며 언제나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과 사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원 사진가'를 선정해 인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있다. 1년 동안 시민 공원 사진가들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인천 공원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을 소개한다.

### 시민 공원 사진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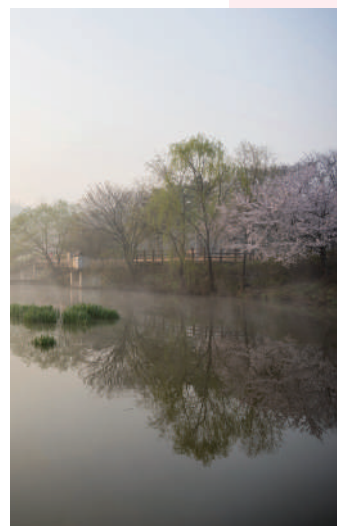
지난 2017년부터 공원과 사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해 모집, 운영하고 있다. 시민 공원 사진가들은 인천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의 사진 작품을 모아 매년 사진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인천 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 공원 사진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포착함으로써 참여형 공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지한 | 인천대공원



황연하 | 인천대공원



봄은 올해도  
성실하게 찾아와  
인천 공원을 화사하고  
따스하게 감싼다.

# 春



이길순 | 늘솔길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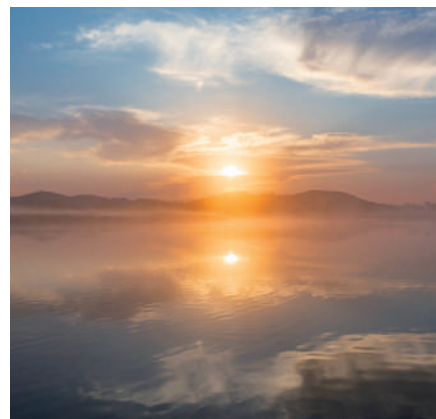
송명진 | 계양장미공원

# 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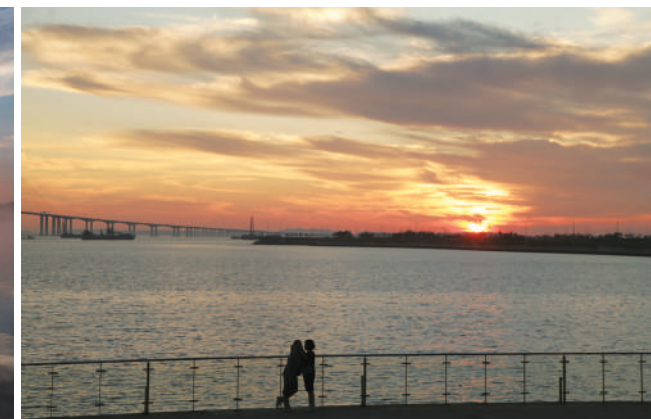
붉은 꽃, 초록 숲, 파란 하늘.  
여름 햇살 아래 인천 공원은 그 어느  
계절보다 선명한 색을 자랑한다.



권귀정 | 노을공원



최명석 | 소래습지생태공원



김연숙 | 롱비치파크



# 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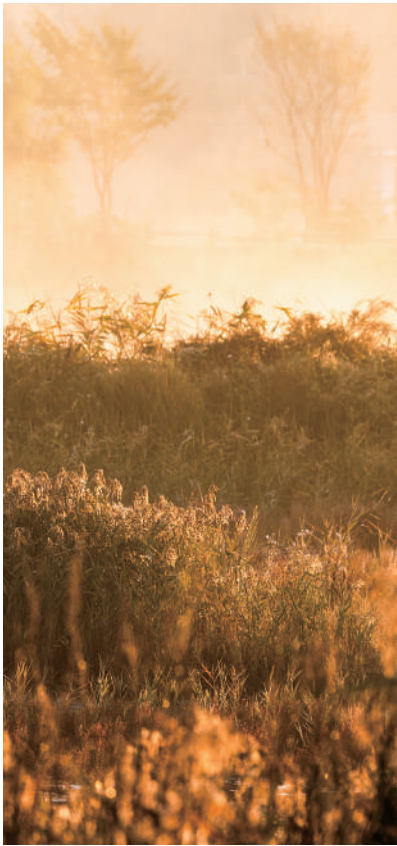


윤지한 | 인천대공원



이길순 | 논현중앙근린공원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바라본다.  
바람도 구름도 잠시 멈춘, 인천 공원의 고요한 가을.  
공기도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고 계절은 깊어만 간다.



윤지한 | 소래습지생태공원



새하얀 눈이 인천 공원을 가득 채우며,  
맑고도 깨끗한 한 해의 느낌표이자 마침표를 찍는다.  
눈 내린 자리마다 새해의 희망과 꿈이 소복소복 쌓인다.



최혜숙 | 청라호수공원



성봉근 | 화도진공원

# 冬



채규정 | 달빛공원



## 인천시 내년도 예산 15조 원, 시민과 함께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



우리 시가 내년도 새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 원 규모로 편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인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13조 9,157억 원) 대비 1조 1,235억 원(8.1%)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따뜻한 동행’, ‘시민복지 일번지’, ‘1,000만 글로벌 도시’로 각 분야에 알맞은 예산을 분배했다.

시 예산담당관실 032-440-2252

##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 ‘재외동포청’ 부기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센트럴파크역’ 명칭을 ‘센트럴파크역(재외동포청)’으로 개정 결정 고시했다. 우리 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는 사실을 홍보하고, 재외동포청을 찾는 방문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역명 부기를 결정했다.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이민 출발지로서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가 재외동포청 방문 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재외동포청 인천 출범을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032-451-2736

## 이동 노동자를 위한 ‘인천생활물류센터’ 활짝

우리 시가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노동자 쉼터의 문을 열었다. 시가 마련한 첫번째 이동 노동자 전용 쉼터이다.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가 위탁 운영하는 쉼터는 남동구 성말로 9 이노프라자 건물 2층에 자리 잡았다. 전용면적은 181㎡이다. 안마의자 등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개인용 컴퓨터와 프린터가 구비돼 있고 음료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시 물류정책과 032-440-3873

## 인천남동산단, 밤에도 아름다운 산단으로 탈바꿈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내 승기천 보행 교량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교량 보행로에 낮과 밤을 콘셉트로 한 바닥 패턴 디자인을 적용하고, 교량 난간 및 주탑 구조물의 색채를 보정했다. 또 경관 조명·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며 시민들의 일터로서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쌓여 있는 터전인 동시에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 산업입지과 032-440-4288

##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24년 만에 해결

우리 시는 24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 인천공항과 서울 강남권 환승 없는 이동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시민 교통비 지원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월 1만 4,000여 명이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87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 원 수당 지급

우리 시는 내년부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보훈수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우리 시는 지난 10월 사망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법적으로 수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예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 보훈정책과 032-440-2974

## 혼잡도 개선 위해 9100번 버스 추가 투입

인천 송의역을 출발해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9100번 노선에 추가로 버스가 투입되면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100번은 9대의 버스가 20~30분 간격으로 일 38회 운행 중이며, 우리 시는 출퇴근 혼잡 시간에 전세버스 2대를 추가 투입하고 있다. 더불어 여기에 버스 한 대를 추가했으며, 향후 우리 시는 혼잡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전세버스 추가 투입 및 출퇴근 시간 버스 증차도 고려할 예정이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82

all ways INCHEON

인천시민 안전지킴이

# 안심In

## 인천시민의 귀갓길 수호천사

### 안심In과 함께 동행하세요

긴급도움 요청하기

나에게 전화걸기

지인에게 알리기

내 친구 위치보기

인천광역시

Android

iOS





## 만석 우회고가교, 왕복 6차로로 탈바꿈

30여 년 세월을 지나온 만석 우회고가교가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산업도로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미관 훼손과 도시 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우리 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을 함께 철거해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032-458-7254

##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 개최

6·25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를 마무리하며 강화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다. 인천강화유족회와 노동희망발전소 공동 주최로 강화군 길상면 추모공원묘역에서 엄수됐다. 사슬재 추모공원묘역엔 6·25전쟁 전후로 희생당한 강화도와 교동도 민간인 희생자 322명의 묘비가 자리하고 있다. 영령들을 추모하는 넋진춤에 이어 최상구 인천강화유족회장 인사말, 추모 공연과 추모시 낭송 순서로 진행됐다.

시 보훈정책과 032-440-2987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전용관 개설

우리 시는 인천e몰과 인천직구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을 개설했다. 그동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 3,000원을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천e몰과 인천직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을 위한 온라인 전용관이 생기면서 여성 청소년들의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구입처가 다양해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청소년정책과 032-440-2845

##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수혜 서비스’ 시작

우리 시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맞춤형 수혜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혜택 및 지원 정보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관심 분야를 설정해 놓으면 관련 정보가 등록될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 정보화담당관 032-440-2323

## 전국 최초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설치

인천시는 중구 월미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구 신트리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각 1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펫폼 앱에 가입 후 자판기에 QR코드를 인식시켜 친환경 배변봉투를 무료로 받아 배설물을 담은 후 수거함에 버리는 방식이다. 우리 시는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행 플랫폼’을 운영하게 됐다.

시 공원조성과 032-458-7048

## 인천애들 공영주차장 2025년 10월 준공

시 청사 및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애들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수한다. 지하 3층, 연면적 2만 570㎡, 주차 대수 644대 규모로 2025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아울러 공사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130면을 포함해 청사 내 주차장 373대를 확보했으며, 직원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문학경기장에 대체 주차장 400대, 문화예술회관에 대체 주차장 100대를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 청사시설과 032-440-2656

## IMAGE NEWS

# 약자와 동행하는 행복도시 인천을 위한 2024년 예산 15조 원

01

## 전년 대비 1조 1,235억 원 증가



# 2023년 13조 9,157억 원  
# 2024년 15조 392억 원

02

##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 3조 733억 원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강화(2조 772억 원)  
#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2,622억 원)  
#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3,352억 원)  
# 농축산업계 및 섬 주민 지원(3,988억 원)

03

##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 5조 3,737억 원



#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7,706억 원)  
# 연령·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3조 7,655억 원)  
#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5,045억 원)  
# 활력 넘치는 시민의 삶(3,331억 원)

04

##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 6조 5,922억 원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1조 310억 원)  
# 도시 경쟁력 강화(3조 1,266억 원)  
# 재난안전도시 구현(9,593억 원)  
# 경제자유구역 고도화(1조 4,753억 원)



## COUNCIL NEWS

## 인천시의회

## 베트남 띠엔장성 대표단 방문

베트남 띠엔장성 인민의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데 미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서해5도 수호안보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영공 도발 행위로 인천 지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서해5도 수호안보결의대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행위 중단 및 정부의 조속한 국가 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 산업경제위원회

##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산업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의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 원도심 활성화 등 토론회 개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10개 군·구 원도심에 산적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교육위원회

## 강풍 피해 학교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는 강풍으로 피해를 본 연수구 소재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유관 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가 피해를 막고 교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 유지를 당부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제291회 정례회 활발한 의정 활동 펼쳐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입법 활동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 행정안전위원회

## 노후한 행정시설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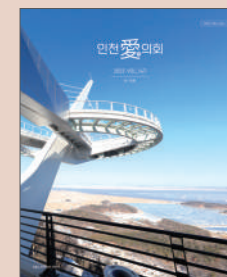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91회 정례회 기간 중 부평소방서, 부평119안전센터 등 노후한 행정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방서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 지방 의료원 경영 안정화 위한 토론회 개최



문화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지방 의료원의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방 의료원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주문하고 정부의 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웹진 QR코드

인천광역시의회의 더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의회 소식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웹진

www.icouncil.go.kr/journal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1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내용  
-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 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  
-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복지 분야 및 보건소 등에 관련 서류 제출  
문의: ㉠ 032-440-1595

2

##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이용 안내

생활문화센터 공간 및 물품 대여  
기간: 6월 1일~12월 31일  
대상: 연수구민  
신청방법: 신청서(사용일 3일 전 제출), 신분증, 초본 제출  
대여장소: 507문화병커 생활문화센터,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대여문의: 각 센터 대표전화

3

## 빈대 예방법

빈대 발견 방법  
- 주간: 신체에 일렬이나 원형으로 물린 자국 발견 시 빈대가 남긴 적갈색의 배설물이나 탈피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음  
- 야간: 캄캄한 상황에서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기 위해 빈대가 움직임  
빈대 방제 방법  
- 물리적 방제: 스팀 고열 분사, 청소기 흡입, 건조기에 의류 30분 이상 처리  
- 화학적 방법: 살충제 처리 (의류나 매트리스 등은 제외)  
문의: ㉠ 국민콜 110, 인천방역협회 032-764-0665



질병관리청 빈대 관련 영상 자료 보기

4

## 서부여성회관 2024년 제1기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023. 12. 22.(금) ~ 2024. 1. 5.(금)  
※ 추가모집 '24. 1. 18.(수) 18:00까지  
교육기간: 2024. 1. 8.(월) ~ 3. 23.(토) 11주 과정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전체 20% 남성수강 가능 - 단, 일부강좌 제외  
수강료: 36,000원 / 45,000원 / 60,000원(교재비·재료비 별도)  
신청방법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www.incheon.go.kr/wiw)  
교육과목  
8개 분야(자격증 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건강교육, 주말교육, 특강)  
77개 강좌  
문의: 서부여성회관 ㉠ 032-458-736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 수능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으로 공연 반값 할인

내용: 수능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챙겨 오면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50% 할인  
대상 공연  
-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얼리 윈터 페스티벌-애니메이션 크루 '춤추는 미술관', 얼리 윈터 페스티벌-하모나이즈 콘서트 '더 쇼 콰이어', 얼리 윈터 페스티벌-뮤지컬 '얼쑤'  
-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2023 클래식 시리즈 V-국립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선우예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인천시립무용단 송년 특별기획 '춤, 풍경: 해외 수교 레퍼토리 모음집'  
문의: ㉠ 032-420-2736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6

##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내용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집계  
- 지난 11월 15일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동시 공개  
- 총 496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  
문의: ㉠ 032-440-5772

7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식물치유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내용  
- 치유농업, 스마트팜, 조경, 도시농업, 약초 재배 등 우리나라 최고 교수진 수업 진행  
- 등록금 100% 장학금 가능 (50% 교수 추천 장학금+50% 국가 장학금)  
- 모든 수업 온라인 강의, 24시간 수강 가능  
- 자기 계발 맞춤형 자격증 취득, 3개 이상 취득 가능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등)  
문의: ㉠ 02-2039-7261, 010-9805-7727

8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 아이디어 공모

내용: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안전 등 세 분야에서 인천자치경찰의 활동을 제안. 선정된 아이디어 및 시민 의견은 2024년도 자치경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공모 기간: 12월 15일까지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응모 방법: QR 코드 바로 가기  
혜택: 응모자 중 무작위 10명, 우수 아이디어 20명 선정 커피 기프트콘 증정



QR 접속 후 응모

9

## 2023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인천 문화유산 놀이터

내용  
-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도보 탐방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 및 기억, 서로 다른 문화 포용 기회 제공  
- 총 4팀 28명 참여해 도보 탐방 후 글쓰기·사진·영상·그림 등 분야별로 탐방기 제작  
- 12월 9일 제물포구락부에서 운영 결과 발표회  
- 12월 9~17일 인천시민앓집 역사전망대에서 문화유산 탐방기 공유 전시회  
문의: ㉠ 032-440-4476

10

## 인향초중고등야간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내용: 개교 61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야학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4월, 8월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대비 수업 과정 학생 모집  
원서접수: 상시 모집(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토·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inhyang.net  
주소: 중구 자유공원로 123-19  
문의: ㉠ 032-772-4061

11

## 인천시립무용단 12월 공연

해외 수교 공연 레퍼토리 컬렉션 '춤, 풍경'  
일시: 2023년 12월 16일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비용: 1만 원  
내용: 우리 춤의 다양한 정경을 엿볼 수 있는 송년 특별기획





# INFO BOX

12

## 학산가족음악회 12월 ‘문화가 있는 날’

2023년 송년 음악회  
장르: 오페라  
장소: 학산소극장  
일시: 12월 27일 오후 7시  
비용: 무료  
참가 신청: 12월 5일부터  
문의: ㉠ 032-866-3993~4

13

## 연수문화원 12월 행사

크리스마스 생화 리스 만들기  
일시: 12월 13일 오후 7시~8시 30분, 12월 15일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연수문화원  
대상: 성인  
내용: 생화 리스 제작 및 포장  
비용: 1회 1만 원(재료비 3만 원 별도)  
참여 방법: 온라인(연수문화포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032-821-6229

크리스마스 컵 만들기  
일시: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3시(초등학생 대상),  
12월 20일 오후 7시~8시 30분(성인 대상)  
장소: 연수문화원  
내용: 크리스마스 컵 제작  
비용: 1회 5,000원(재료비 2만 원 별도)  
참여 방법: 온라인(연수문화포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032-821-6229

14

## 송도컨벤시아 12월 전시회

2023 인천 베이비 페어  
일시: 12월 14~17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송도컨벤시아 2홀  
비용: 사전 등록 및 페어프리 앱 다운로드 시 무료  
문의: ㉠ 051-740-7704 ㉡ www.icbaby.co.kr

15

##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내용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모집.  
모집 인원: 156명  
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일반모집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신청 기간: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방법: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모집하며, 12월 8일 전산 무작위 추첨  
문의: ㉠ 032-120, 032-440-2428

16

## 인천 지역 도서관 12월 소식

미추홀도서관\_전통 문양 체험  
일시: 12월 16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440-6665

미추홀도서관\_공기청정기 만들기 체험  
일시: 12월 16일 오전 10시~11시 30분  
대상: 초등학교 3~4학년  
문의: ㉠ 032-440-6667

청라호수도서관\_공연 ‘눈꽃 여왕의 크리스마스’  
일시: 12월 9일 오전 11시~11시 50분  
대상: 누구나  
문의: ㉠ 032-563-8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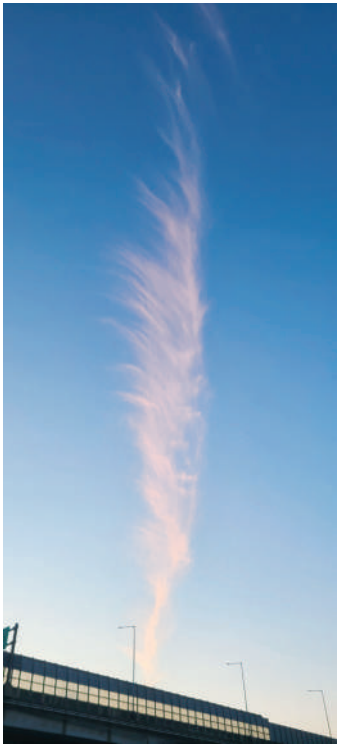
마전도서관\_인생 사진으로 만드는 엽서  
일시: 12월 9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누구나(10명)  
문의: ㉠ 032-590-2833

# 나만의 연말 풍경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시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연말을 보내는  
인천시민의 모습을 전합니다.

기현주 부평구 마장로



우리 회사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사방이  
탁 트여서 하늘을 파노라마로 감상  
할 수 있다는 것.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년엔 더 행복하고 멋지길 바라며 올  
한 해 수고했어, 우리 모두!

#하늘맛집\_회사  
#수고한\_2023 #기대되는\_2024

김성진 연수구 송도문화로



아버지 칠순잔치, 베프의 결혼식,  
가족 여행까지 특별한 날이 계속되는  
올 연말.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다. 생일 주인공, 우리  
아버지도 행복한 날이었기를.

#존경하고\_사랑합니다  
#나이가\_빛이\_중헌디 #인생은\_70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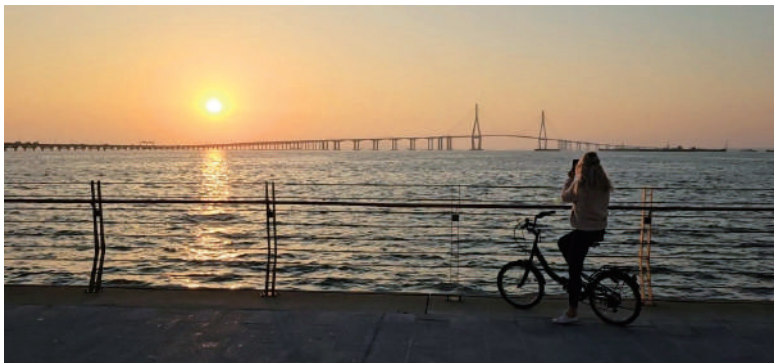
이주연 부평구 부평대로



오랜 시간 하나하나 모은 크리스마스  
아이템이 한가득. 한 해 한 해 추억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입가엔  
언제나 웃음이 지어진다. 올해는 또  
어떤 행복한 일이 벌어질지 궁금.

#크리스마스\_기념\_아이템  
#나의\_소중한\_연말\_컬렉션

애들린 허베이 Adeline Herbey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봉주르(Bonjour)!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대한민국에서  
멋진 꿈을 꾸고 이루면서 살고 싶은 프랑스 여자, 나의 도전은 계속된다!

#인천대교 #바다 #노을 #다짐

## ‘나만의 새해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 [참여 방법]

- ① 새해를 맞이하는 일상의 풍경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 보내실 곳: goodmor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1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12 Culture Calendar

## 이달의 전시

1970년, 승란씨의 결혼 이야기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한나루  
12월 3일까지  
☎ 032-440-6736



IAP x KIMDAYE 작가의 방  
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12월 30일까지  
☎ 032-760-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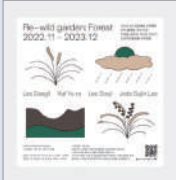
서예를 감상하다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2024년 3월 31일까지  
☎ 032-440-6777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포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2월 3일까지  
☎ 032-440-4708



Re-wild garden: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 032-760-1000



## 이달의 공연

01 금

2023 얼리 윈터 페스티벌 - 애니메이션 크루 '춤추는 미술관'  
남동소래아트홀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12월 2일 오후 2시  
전 석 1만 원  
☎ 1588-2341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 - 밴드 라이브  
Around the Corner: 오마르와 동방전력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1588-2341



영화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764-5131



02 토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 - 밴드 라이브  
Around the Corner: 갤럭시 익스프레스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12월 2일 오후 5시  
무료  
☎ 1588-2341

버스킹 메모리즈 콘서트 - 광장 라이브  
Remember the Memories: 아카시아 & 자전거 탄 풍경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12월 2일 오후 3시  
무료  
☎ 032-420-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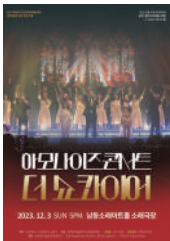
토요 스테이지 - 최후의 클래식 쇼스타코비치 V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2일 오후 3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032-453-7700



## 이달의 공연

0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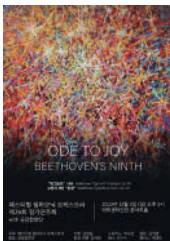
2023 얼리 윈터 페스티벌 - 하모나이즈 콘서트 '더 쇼 콰이어'  
남동소래아트홀  
12월 3일 오후 5시  
전 석 1만 원  
☎ 1588-2341



2023 클래식 시리즈 V - 국립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선우예권  
중구문화회관  
12월 3일 오후 4시  
R석 7만 원, S석 4만 원, A석 2만 원  
☎ 032-420-2737



페스티벌 필하모닉 제26회 정기 연주회: 베토벤 '합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3일 오후 5시  
무료  
☎ 010-8610-1510



김정휘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3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6 수

이상은 첼로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07 목

2023 얼리 윈터 페스티벌 - 뮤지컬 '얼썬'  
남동소래아트홀  
12월 7일 오후 2시,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12월 9일 오후 2시  
전 석 1만 원  
☎ 1588-2341



08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18회 정기 연주회 '클래식 나우 VI: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420-2781



10 일

김채은 플루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제2회 청년실내악 축제 '함께 가는 길, 그 의미를 노래하다'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12월 10일 오후 5시  
전 석 3만 원  
☎ 032-453-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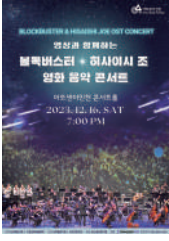


14 목

인천시립합창단 제184회 정기 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R석 2만 원, S석 1만 원, A석 7,000원  
☎ 032-420-2784

16 토

블록버스터 &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16일 오후 7시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3만 원  
☎ 032-858-2231



17 일

남관모 트럼펫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17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드미트리 쉬시킨 더 콘체르토: 프로코피예프 & 라흐마니노프 3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17일 오후 7시  
R석 13만 원, S석 11만 원, A석 8만 8,000원, B석 5만 5,000원  
☎ 02-540-2706



20 수

2023 커피 콘서트 X - 윤한 '크리스마스 인 시네마'  
동구문화체육센터  
12월 20일 오후 2시  
전 석 1만 5,000원  
☎ 1588-2341



22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 연주회 '2023 송년 음악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453-7726



23 토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3: 인천 파이널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23일 오후 3시, 12월 30일 오후 3시, 12월 31일 오후 3시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 070-4190-1289



이강호 첼로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4 일

2023 ACI 송년 음악회: KBS 교향악단 & 피에타리 잉키넨 '합창' 교향곡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24일 오후 7시  
R석 9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 032-453-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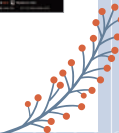
25 월

크리스마스 콘서트 - 퍼니밴드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12월 25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3만 원  
☎ 032-289-4275



26 화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협주곡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 일리아쉬코프스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  
VIP석 12만 원,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 02-6292-9375





#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 이달의 드로잉 개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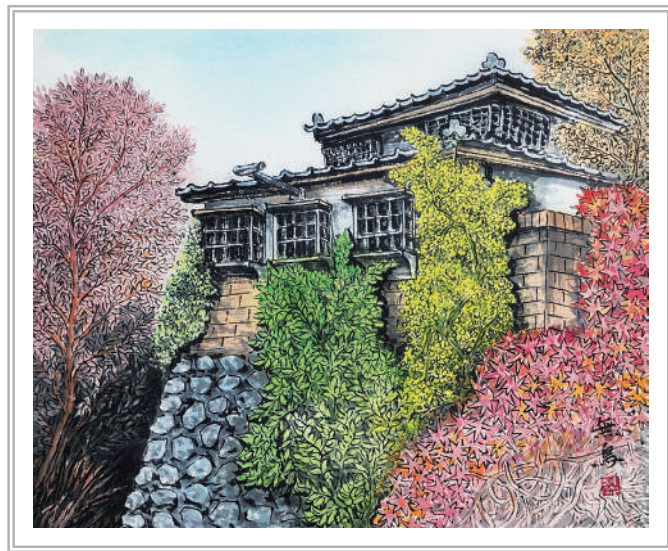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 서권수 작가



35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정년퇴임 후 작업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수묵화를 전공한 그는 다른 색을 쓰지 않고 오직 먹과 물로만 표현하는 수묵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수묵화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연구한 수묵화 기법과 표현을 전수하고자 애쓰고 있다.



서권수 작가의 채색 가이드

개항장은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각 나라의 특징을 살린 건물을 면면이 엮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림 속 개항장 고택은 옛날 인천시장 관사인 '인천시민앓집' 근처에 자리잡은 전망 좋은 집이다. 인천 내향이 내려다보이는 데다 높은 담장의 담쟁이 넝쿨과 단풍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 ▷ 2023년 11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윤미 남동구 논고개로



김재현 서구 가정로



홍성수 남동구 서창방신로



원준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신해원 미추홀구 경원대로

###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12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인천인이 그린 인천

고사리손으로 꺾꾹 눌러 색칠한 작품부터 세월에 주름진 손으로 정성스레 그린 그림까지. ‘컬러링 인천’에 보내주신 시민 작가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채로운 시민의 빛과 색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밑바탕이 되어주신 인천의 작가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보내주신 작품을 모아 ‘지면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인이 그린 인천. 2024년, 우리는 더 찬란해질 것입니다.

2월 | 서구 어느 골목에서 정재영 서구 봉오제로



4월 | 남촌도림동 이종경 중구 대무리로



1월 | 계양산 노시한 서구 서달로



3월 | 청라성당 김승원 계양구 살리리로



5월 | 계양산 김윤미 남동구 논고개로



6월 | 강화도 가는 길 이승연 남동구 인주대로



8월 | 백령도 노효성 남동구 성말로



10월 | 인천대공원 김윤섭 연수구 해돋이로



7월 | 갯이부리마을 김연희 연수구 송도대로



9월 | 장수동 윤인영 미추홀구 문화로



11월 | 송월동 신해원 미추홀구 경원대로





2023  
굿모닝인천

내년은 올해보다 더  
밝고 희망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  
MARCH

인천 미소 매달 깊이 있는 배움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부평지하상가  
더 인천 :사람 ③ 인천의 얼굴들  
골목길 TMI ⑨ 쇠뿔고개길  
인천 오감 레시피 ③ 연평도 꽃게 리소트  
트렌드 인천 2023 ③ 바야흐로 골목의 시대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정성길 단청장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③ 인천의 야생화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① 일본 요코하마  
여행 중인 팔미도로 떠나는 봄나들이  
문화 중인 새얼 국악의 밤 30주년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 수칙  
시정 뉴스 '제물포 르네상스'로 원도심 균형 발전 기대 외  
의회 뉴스 제6기 의정보니터 소양교육 실시 외  
인포 박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외  
문화 캘린더 문자+더하기 그림 외  
컬러링 인천 청라성당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신선한 재료에 영혼을 버무려 만든 요리를 외  
인천의 아침 팔미도등대 '120년 불빛'과의 대화  
한 컷 인천 봄길 그 바다

1  
JANUARY

인천 미소 인천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은 이유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문학산  
신년사 시장·의장 메시지 2023년에 바란다  
더 인천 ① 도시의 낮과 밤  
골목길 TMI ⑦ 수인국물시장  
인천 오감 레시피 ① 섬 한우와 강화 순무 술밥  
트렌드 인천 2023 ① 디저트 카페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규방다례 보유자 최소연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① 인천 시조 두루미의 귀환  
새해 이렇게 달라져요 2023 변화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  
그래픽으로 보는 2023년 예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로의 도약  
새 책 <웅진섬애향한다>, <지금, 빛나는 인천>  
이미지 뉴스 2023년 인천시 교통 복지  
시정 뉴스 수소 대중교통 체계 진입 본격화 외  
의회 뉴스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 외  
인포 박스 2023년 미추홀북 최종 도서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외  
컬러링 인천 계양산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2023년 새해 인사 외  
인천의 아침 인천 미술과 뮤지엄파크  
한 컷 인천 눈 덮인 갯벌

4  
APRIL

인천 미소 사람의 향기 가득한 <굿모닝인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용동큰우물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④ 인천으로 날아온 고니  
더 인천 :기억 ④ 봄날의 '오일장'  
골목길 TMI ⑩ 영흥도 돌레길  
인천 오감 레시피 ④ '만석동' 주꾸미 샤부샤부  
트렌드 인천 2023 ④ 지구를 위한 채식 한 끼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김국진 휘모리집가 보유자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② 홍콩  
중인 ADB 연차총회  
새 책 개항기 인천엔 어떤 외국인들이 살았을까  
이미지 뉴스 교통 복지 도시, 인천  
시정 뉴스 청라호수공원 <더 클로라> 촬영지  
관광지원화 추진 외  
의회 뉴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외  
인포 박스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외  
문화 캘린더 주말 N 박물관 외  
컬러링 인천 남촌도림동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하와이에서 만난 인천 사람들 외  
인천의 아침 인천우체국 100년과 빨간 우체통  
한 컷 인천 인천의 밤하늘엔

2  
FEBRUARY

인천 미소 2023년에도 좋은 친구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더 인천 ② 인천의 목욕탕  
골목길 TMI ⑧ 부평 평리단길  
인천 오감 레시피 ② '영종도' 새우젓 봄동 파스타  
트렌드 인천 2023 ② 취미 더 머니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목조각장 이방호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② 인천을 사랑하는  
겨울철새들  
국립세계문학박물관 개관 특집 정족사고 외규장각을 가다  
새 책 <길을 묻다>, <하루 교양 공부>  
이미지 뉴스 정신건강 심리 지원 서비스 다각화  
시정 뉴스 시민 의견 반영한 전통차 디자인 확정 외  
의회 뉴스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한 신년 인사회 개최 외  
인포 박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문화 중인 슬기로운 방학 생활  
문화 캘린더 '김동우 사진전: 편도, 몽우리들을 찾아서' 외  
컬러링 인천 서구 어느 골목에서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설날 덕분에 새해 '리셋' 외  
인천의 아침 우리나라 최초 군함 입항 120주년  
한 컷 인천 소원지와 달집태우기

5  
MAY

인천 미소 인천시민의 손수건이 되어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화평동  
더 인천 :가족 ⑤ 5월 특집 '아버지와 어머니'  
골목길 TMI ⑪ 제물포 인천내항길  
인천 오감 레시피 ⑤ '신도' 참소라 비빔밥  
트렌드 인천 2023 ⑤ 운동하기 좋은 인천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법패와 작법무' 능화스님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⑤ 꿀벌, Let it Bee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③ 싱가포르  
비전 인천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중인 인천시 홍보대사 희망 메시지  
시정 뉴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외  
이미지 뉴스 시민을 잘 돌보는 인천  
의회 뉴스 제300회 청소년 의정교실 운영 외  
인포 박스 은근 재산 신고 제도 외  
문화 캘린더 활강달강 전사시대 놀이터 외  
컬러링 인천 계양산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꿀벌을 사랑한 남자 외  
인천의 아침 개항 140년, '제물포 르네상스' 꽃피우다  
한 컷 인천 초록의 계절을 마중 나갈 때

6  
JUNE

인천 미소 꿀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계양산 돌레길  
특집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성공  
골목길 TMI ⑫ 구읍뱃터 물길 따라 역사 산책  
더 인천 :공간 ⑥ '국립세계문학박물관' 개관  
인천 오감 레시피 ⑥ 사색 '장미 화전'  
트렌드 인천 2023 ⑥ 인천 청년 농부들의 삶과 꿈  
화보 '빛의 도시' 인천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김환중 단소장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⑥ 저어새  
중인 ADB 연차총회 성료  
시정 뉴스 인천시, APEC·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100만 서명 돌입 외  
의회 뉴스 제28회 임시회 개최 외  
인포 박스 젠더 폭력 예방, 3생 ZERO 외  
문화 캘린더 '김찬삼, 여행과 기록展' 외  
컬러링 인천 강화도 가는 길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한 회상 외  
인천의 아침 인천유나이티드 창단 20주년  
한 컷 인천 저어새들의 포근한 둥지

9  
SEPTEMBER

인천 미소 가장 안전다운 <굿모닝인천>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출산공원  
골목길 TMI ⑮ 인천상륙작전 길 따라 걷기  
더 인천 :살아가는 바다 ⑨ 바다, 물고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인천 오감 레시피 ⑨ 장봉도 '백합탕'  
트렌드 인천 2023 ⑨ 웰니스 로컬 관광 시대  
인천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⑨ 인천시 깃대종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한명자 완초장  
공감 만남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문화 중인 1 '태고의 지구, 백령도에서 우주를 보다' 전시회  
문화 중인 2 인천포크음악페스티벌  
시정 뉴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활동 성료 외  
이미지 뉴스 교통 편리한 인천  
의회 뉴스 청년이음 간담회 마련 외  
인포 박스 2023년 청년 재정 UP 클래스 외  
문화 캘린더 동상이몽·'큐레이터의 선택 스펀오프展' 외  
컬러링 인천 장수동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굿모닝인천> 외  
인천의 아침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 컷 인천 포토 에세이

7  
JULY

인천 미소 재외동포청 유치, 환영합니다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논현동  
더 인천 :민선 8기 1주년 특별기획 ⑦ 역사의 순간, 춤이 되다  
특집 민선 8기 1주년,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골목길 TMI ⑬ 긴담모퉁이길  
인천 오감 레시피 ⑦ 영흥도 '바지락 고추장짜개'  
트렌드 인천 2023 ⑦ 코로나19 엔데믹, "반가워! 문화예술"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⑦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황길범 강화옹두래질소리 보유자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④ 영국 리버풀  
시정 뉴스 인천대로 지하화, 2027년 준공 목표 외  
이미지 뉴스 1,000만 도시 프로젝트  
의회 뉴스 신성장 산업 육성사업 적극 지원 외  
인포 박스 경안역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외  
중인 <창해문화> 학술 심포지엄  
문화 캘린더 '항해를 향하여는 자: 12개의 통로' 외  
컬러링 인천 갯이부리마을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 외  
인천의 아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한 컷 인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4주년

10  
OCTOBER

인천 미소 인천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다 외  
시민행복 메시지 <굿모닝인천>은 인천, 인천시,  
'인천시민'의 집지다  
더 인천 :사람 ⑩ 삶을 움켜쥔, 손  
골목길 TMI ⑯ 주안동  
시민 출사 시민작가의 눈에 담긴 인천, 그리고 가을  
인천 오감 레시피 ⑩ 남촌회관, '인천대공원' 대파 크림 파이  
트렌드 인천 2023 ⑩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선집중, 인천 스포트라이트, 인천 비추다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스턴 허버  
시민행복 인천 마을까지 건강한 도시, 인천  
시정 뉴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료 외  
이미지 뉴스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파급 효과  
의회 뉴스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외  
인포 박스 긴급 통제 돌봄 서비스 추진 외  
문화 중인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훈,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포 展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문화 캘린더 '피고 지고, 그리고~ 화수화평동' 외  
컬러링 인천 인천대공원  
인천의 아침 110만 인천 서명운동  
한 컷 인천 가을이 보낸 편지

8  
AUGUST

인천 미소 늘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 외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월미공원  
8·15 광복절 특집 호국, 평화의 강을 흘러온 도도한 물줄기  
골목길 TMI ⑭ 옥련동  
더 인천 :공간 ⑧ 건축, 도시 그리고 사람  
인천 오감 레시피 ⑧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인천 해산물  
파피요트'  
트렌드 인천 2023 ⑧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웰다잉  
인천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박호준 공시장  
세계 초일류도시를 가다 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정 중인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  
문화 중인 인천시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 발간  
새 책 <철도원 삼대와 인천 길>, <사람은 사랑의 기준>  
시정 뉴스 민선 8기, 공약 실천율 1년 만에 10% 넘어...  
목표 대비 153% 외  
이미지 뉴스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인천의 도약  
의회 뉴스 제1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 외  
인포 박스 국내 유일 차매 친화 영화관 운영 외  
문화 캘린더 외연과 심연 외  
컬러링 인천 백령도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편집 후기 '대중상'과 '예술상'의 공존을 위하여 외  
인천의 아침 광복 78주년, 호국 보훈의 도시 인천  
한 컷 인천 칠발에 그려진 태극기



# 추억에서 미래로

글 이상림 인천시 총괄 건축가, 공간그룹 대표



빛나는 인천의 아침 © 류창현

아름다운 아침이다. 바다와 하늘길, 옛 도심과 신도시, 신화와 같은 역사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인천시민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면적의 두 배나 되는 땅을 가진 인천은 매력으로 뚝뚝 뭉쳐 있어 다른 도시들이 몹시도 부러워한다.

공항을 만들기 위해 땅을 매립할 때 영종도에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했다. 그때는 공항이 섬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 기우에 불과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늘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청다오, 다롄 등 중국으로 연결되는 배편은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손님을 실어 나르기 바쁘다. 인천은 남동인더스파크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가 근대산업의 중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바이오와 UAM<sup>도시항공 교통</sup> 등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첨단 산업이 인천이 지닌 기본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인천은 서울과 꽤 먼 도시였다. 그때 희극인 고<sup>췌</sup>서영춘 씨는 브라운관에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곱뿌가 없으면 못 마신다”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을 웃음바다로 몰아넣곤 했다. 대학생 시절에 만난 송도 바다 저편에는 아암도라는 작은 돌섬이 있었다. 그곳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맛보던 순간은 내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다.

인천은 오늘,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원도심 활성화와 미래 도시 창조를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인천의 많은 인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경주하고 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 무선이동통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 기반시설이 필요한 통신사업은 이 시점을 계기로 명암이 바뀐다. 대한민국의 동서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 기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의 경우 일정 부분을 건너뛰어 곧바로 무선통신 사업에 뛰어들으로써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한다. 그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존에 투자한 시설의 무게로 인해 더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한 예로 UAM 시설을 살펴보면,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계 각국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자동차 산업이 멈칫거리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선진국의 각 도시들은 Vertiport<sup>UAM 이착륙 시설</sup>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개발의 여지가 많은 인천은 가능성이 크다. 강을 따라가거나 대로 위를 이용해 30~50km 속도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UAM은 확실히 매력적이다. 도시를 한 번에 개조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현재의 기술과 요구조건을 감안해 새로 계획하는 모든 건설 부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계획이 불필요하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빛나는 아침과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빠르고 편리한 UAM이 펼쳐진 인천의 미래 도시 풍경을...



※ 이상림은 현재 인천광역시 총괄 건축가로, 공간 건축에서 4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33년간 공간을 이끌고 있다.

# 일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다

참여 오종선 시민 가족(연수구 만우금로) | 사진 김현희 포토그래퍼

인천시가 시민께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행복을 새겨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새 시민 참여 코너 ‘시민행복’ 네 컷. 이번 호에는 일몰이 아름다운 ‘정서진’에서 오종선 시민 가족에게 추억을 안겨드렸습니다.

“올해로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좋은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제 곁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말로는 다하지 못할 감사를 전합니다. 인천에 오래 살았는데도 정서진에는 처음 왔습니다. 일출이 아름다운 강원도 강릉 정동진의 대청이 바로 이 정서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일몰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올 한 해 이곳에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5월에 아들을 장가보냈고, 내년 3월에 딸을 시집보낼 예정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내와 단둘이 오붓하게 서로를 챙기며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열어갈 내일이 기대됩니다.”

## 다음 호 주인공은 바로 나!

### [참여 방법]

‘시민행복’ 네 컷에 참여하고 싶으시다고요? 가족, 친구 등 사진을 함께 촬영할 분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와 사연을 메일로 남겨주세요. 채택되시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멋진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메일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